

2017년 5월 26일, 성산을 오조리 오조리사무소, 송정희 조사.  
 신춘자(여, 1944년생, 성산을 오조리)

• 줄거리: 정월 명절에 제를 지내고 도깨비불을 보러 다닌 이야기이다.

[제보자] 도체비 봐난 말은 잇주. 아니 난 실지로 봤어.

[조사자] 실지로 봐난마씨?

[제보자] 예.

[조사자] 그 얘기 해 줘서. 도체비 봐난 얘기.

[제보자] 구좌읍 월정리에서 셋동넨데, 옛날에 막 큰 풍선이 잇어놔주게마씨. 쓸덜 싹거 강  
 풀고 향아리 곁은 거 싹경 막 파는 거예. 그런 거 헌디, 그 알에예. 우리 실지 봤어.  
 이제는 정월명절에 하는 한 네시쯤에 떡국 행 올리주마씨. 겐디 여기 이제는 그  
 런 식을 안 헌디. 우리 어릴 적에는 떡국 해가지고 한 4시쯤에 체려가지고, 이제  
 제를 지내.

“이제 도깨비 보레 가자.”

이제 우리 어릴 적에 해놔주게마씨. 거니깐 그 어릴 적에 가 보니깐, 막 불난  
 것처럼 헤여네. 환허게 그때는 전기불도 엇고 등도 엇고 아무것도 엇일 때주마  
 씨, 거니깐 불이 흰허네. 막 겁난

“불 낫다. 불 낫다.”

허난, 우리 친구아이가

“거 불이냐? 도깨비 불 아니냐.”

“어떻게 도깨비 불이 저처럼 크게 나냐? 가만 보게.”

여기서 한 백 메다, 한 백오십 메다 정도 뒹주마씨. 그 배 잇는 데가. 우리 같  
 이 강 구경허고 허는디, 막 퍼집더다게. 그것이 영 헛다그네 뭐 헌 것처럼 짹 퍼  
 지고, 짹 퍼지고. 또 가만히 잇고.

[제보자] 경 헌디, 그것이 한 십분 정도 이레 갖다 배 알로도 갖다 막 우이로 갖다, 헌 건  
 분명헤마씨. 어릴 적에 보기에.

그때가 우리 한 초등학교 한 사. 오, 육학년 때난 막 어렸주게. 육십년 전이지.  
 그때 그거 한 번 실지 봤수다.

• 핵심어 : 도깨비, 불, 정월명절, 월정리, 배, 도깨비불, 도체비, 떡국